

# 자연가족계획 연구 및 사업의 국내의 동향

맹 광 호

(가톨릭의대교수·예방의학)  
전 「행가운」 사무국장

## I. 머 리 말

가족계획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교회는 전통적으로 약이나 기구 또는 수술적 방법을 쓰지 않는 소위 자연적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왔다.

가족계획에 관한 교회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그러나, 주로 '책임있는 부부애'와 '생명경의'라는 측면에서 늘 간접적으로 강조되어 왔을 뿐—1930년 비오 11세의 회칙 「순결한 혼인」, 1951년 비오 12세의 「산파들에게 주는 담화문」, 1961년 요한 23세의 「어머니와 교사」 그리고 1965년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등—부부들이 실제 어떻게 피임을 해야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은 아마도 1968년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에서라 할 수 있다.

이 회칙 16항에 보면 “그러므로 부부의 육체적 혹은 심리적 이유이건, 또는 외적 환경의 이유이건 다음 출산 때까지 간격을 두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부는 생식능력에 내재하는 자연주기를 이용하여 불임기에만 부부행위를 함으로써 도덕률을 거스르는 일이 없이 산아조절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교회는 가르치는 바이다”라고 돼 있다.

교회가 이처럼 부부들의 가족계획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교회가 모든 가정의 행복과 성화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이며 적어도 현대 가정들에 있어서 가족계획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들 가정의 행복과 성화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

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목헌장 4항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의 행복과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복지는 곧 가정의 건전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 가정의 존엄성이 어디서나 똑같이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예컨대 다처주의, 이혼의 성행, 자유연애 등에 의한 혼인과 가정제도의 약화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이기주의, 향락주의, 그리고 부당한 피임 수단 등으로 부부의 사랑이 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 문제들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들이 그렇듯이 가족계획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또한 결국은 하느님 친히 세우신 혼인과 가정제도의 높은 가치를 현양하고 이를 통해 가정을 성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이런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을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교의적인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은 바로 현실적 가정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논리성이나 실천적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기도 하다.

## II.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의 개발 및 연구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이란 한마디로 부부행위의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임신을 성취하거나 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그 실천을 위한 방법은 여성의 월경주

기중에 일어나는 증상이나 신체부분의 변화를 관찰 또는 기록함으로써 임신이 가능한 시기와 가능하지 않은 시기를 부부가 배워서 이를 그들의 부부생활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임신이 가능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시기—그시기를 결정하는 생식생리 현상이 곧 자연가족계획 방법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이런 현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알아내어 그 실용적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 이 분야 연구의 배경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서 매주기마다 한번씩 일어나는 배란, 그리고 그 배란과 관련된 증상과 신체변화의 주관적 감지가 실제 임신시기 판단에 어떻게 확실히 이용될수 있는나 하는것이 순전히 방법적인 면으로 본 자연가족계획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난자의 존재를 제일처음 문헌에 보고한것은 1827년 「본·베어」라는 사람이다. 그뒤 1847년에는 「푸체」라는 사람이 월경주기 중간통과 자궁경부 점액의 존재를 보고했고 월경 한주기중 여성의 체온이 높고 낮은 두개의 체온대를 이룬다는 것을 발견한것은 1877년의 「자코비」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체온변화를 난소 활동과 관련지어 설명한 사람은 1905년의 「반데벨트」와 1913년의 「한센」이라고 한다. 어찌됐든 이런 발견들은 후에 소위 주기법이나 기초체온법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문헌이 되는 셈이다.

한편 1903년에는 「프랑켈」이란 사람이 황체의 수명이 2주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발견은 1924년 좀더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12일에서 16일이라고 본 「오기노」와 배란뒤 약 2주지나서 다음 월경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고한 1933년의 「크나우스」에 의해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연구는 과학적 사실의 규명에 그 목적이 있었을 뿐, 따라서 이것을 피임 목적으로 쓰기에는 이론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자궁경부의 점액이나 배란뒤 체온의 상승 등 배란과 관련된 여러가지 증상이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50년대 이후 소위 「하트만」의 달력—주기법 「마살」, 「불만」 등의 기초체온법, 「빌링스」의 점액관찰

법, 이 개발되었고 또 미국의 「카—프」는 배란 시기에 자궁경부의 위치와 그 열리는 정도가 달라지는 이치를 이용하여 소위 자궁경부축지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와서 오스트리아의 「퇴처」 같은이는 체온과 기타 배란증상을 함께 관찰하는 소위 증상체온법의 체계를 세워 보급하고 있으며 1972년에 「인슬러」 등은 점액과 자궁경부 모양으로 배란점수(ovulation score)법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배란시기 판단에 응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약 30년사이에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은 그 과학적 원리와 가족계획 방법으로서 실용성이 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이런 연구가 세계도처에서 실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을 보면 보다 간편하게 배란일을 알아내기 위한 것들로서 소변이나 타액속에서 장차 일어날 배란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을 보다 간편하게 찾아 내려는 것들이 그 주종을 이룬다.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효과조사를 하고있는 소변중의 배란전기 홀몬측정 테이프는 그 좋은 예 중의 하나다. 이외에도 컴퓨터화한 기계적 조작에 의해 체온변화로 부터 쉽게 가입기 여부를 그때 그때 알려주는 기계등은 이미 대량생산되어 시판이 되고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연구와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개발품들은 그 정확성이 가령 직접 점액을 관찰하는 것만 못한게 사실이며 아직은 점액관찰이나 증상체온법의 보조적인 기구로 쓰이는것이 좋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어쨌든 앞으로 멀지않아서 이 자연가족계획 방법은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객관적 배란측정 방법이나 기구가 개발 보급될 가능성이 많은것이 사실이다.

### Ⅲ. 자연가족계획 사업의 국내외 등향

앞서 설명한것처럼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은 지난 약 30년동안 꾸준히 가족계획 방법으로서의 과학성과 유용성이 인정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왔다.

특히 가족계획에 대한 우리 가톨릭교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회내의 많은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이 방법들을 지도 계몽하는데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교회의 이런 관심과 활동에 큰 계기가 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하나는 앞서 연구부문에서 언급한 「하트만」의 《과학과 안전주기》(Science and the Safe Period)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수에넨스」추기경의 《사랑과 자제》(Love and Control)이라는 책이다.

지금도 전세계 거의 90여개국 이상에서 이 자연 가족계획이 가톨릭신자나 일반인들에 의해서 실천되고 있지만 1950년과 60년대 중반 사이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그리고 모리셔스 등 몇 나라에서만 비교적 조직적인 교육계몽이 있는 정도였다.

그래서 자연가족계획 역사를 조감할때 이들 몇 나라를 자연가족계획 1차국으로 꼽고있기도 하다. 그뒤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 전세계로 급히 보급되어 이 시기에 약 60여개국이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한것으로 봐있다.

이런 세계적 경향에 비추어 국제적인 상호교류와 협조를 위한 기구나 조직 또한 여러 개가 생겨나고 있는데 호주에 본부가 있는 세계 배란법 기구(World Organization of the Ovulation Method Billings)와 미국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국제 가정생활 증진 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for Family Life Promotion) 그리고 몇 해전 역시 미국에 생긴 인간생명 협회(Human Life International) 등이 그 대표적인 단체라 할 수 있다.

그 외 세계보건기구내의 인간 생식생리 연구 부서라든가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성 요한 대학 인간 생명 연구소(Human Life Center) 등이 이와 관련된 연구 및 훈련 사업을 펴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매년 또는 몇 년에 한번씩 세계 대

회를 가지고 각국의 활동을 서로 토의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역시 최초로 점액관찰법을 보급한 호주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톨릭 국가들이 많은 남미를 비롯 세계 여러 나라에 자기 독자적인 자연 가족계획 단체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전국 조직을 가지고 주로 가톨릭 교회와 교회 병원을 중심으로 이 자연적 피임 방법을 지도하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 행복한 가정 운동 전국 협의회'가 서울에 있고 각 교구에 교구 위원회와 교육시설 및 지도원을 가지고 있다(별첨 「매리백휴」수녀님의 영문원고참조).

1975년 말에 시작된 이 운동은 이 방법을 배우려는 부부들에게 직접 지도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성교육, 임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정의 중요성과 결혼의 신성성 등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성화운동의 하나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매년 약 1만 명의 부인들에게 이 방법을 지도하고 수만 명의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바른 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78년부터는 이 분야에 있어서 매우 발전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자연 가족계획 교본 개발을 위한 6개국 연구 프로젝트에도 관여하여 활동을 해온 형편이고 각종 국제 회의에도 나가 한국에서의 행복한 가정 운동을 소개해 왔던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연적 가족계획 보급 지도 활동이 주로 교회와 그 관련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행복한 가정 운동만큼 폭넓게 교회의 관심과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도 드물다. 물론 아직도 활동이 부진하거나 이 일에 관심이 적은 교구와 사목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점 실제로 한국의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다른 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크게 부러워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